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1. 40년 한국 양궁의 역사

(장기적 비전과 목표설정)

스포츠와 기업은 서로 공통된 영역을 갖고 있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경쟁하고 스포츠는 승리추구를 위해 경쟁하기 때문이다.

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적 비전과 목표설정이 있어야 한다.

한국양궁의 장기적 비전과 목표는 세계 양궁계의 극심한 견제 속에서도 변함없는 챔피언으로 살아남는 것이다.

기업도 글로벌 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함이 존재의 이유다.

(도전과 열정)

국제양궁에서 챔피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도자나 선수들의 도전정신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CEO와 직원들의 무한 도전정신과 열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미국발 글로벌 경기악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로 기업 부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뭉쳐진 기업은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의 양궁도 몇 년 전부터 국제양궁의 경기방식의 변화를 예견하고 새로운 훈련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준비한 결과 현재의 한국양궁이 국제양궁을 리드하는 쾌거를 거두고 있다.

2. 한국 양궁의 저력과 역량

(철저한 대상자 선발) : 인재(국가대표)를 구하라.

어머니가 열 달의 산고 끝에 아이가 태어나듯 한국의 양궁대표도 열 달간 10회의 선발전이 치러진다.

선발전 참가자는 전년도 남녀 랭킹 100위 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엄청난 경쟁이 시작된다. 선발전 방식도 다면평가를 통해서 치러지는데 1차에서 10차까지 체력, 정신력, 집중력, 담력, 승부근성,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극기력등을 검증하고 최종 살아남은 4명의 선수들을 3번의 국제대회에 출전, 실제상황에서 강한 자를 3명 최종 선발한다.

(철저한 대상자 육성) : 인재는 만들어 지는 것이다.

결정적 순간에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철저하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승부근성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훈련방법을 개발하고 선수들에게 접목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것이다.

(철저한 관리와 치밀한 준비) : 의사소통과 리더십

최고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을 관리하는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혹독한 훈련과정에서도 선수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행동을 함으로서 일체감과 동료의식을 느끼도록 한다.

많은 시간을 대화와 교감을 나눔으로서 상호간의 신뢰감이 저절로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리더의 역할을 극대화 한다.

3. 한국 양궁의 향후 과제

(발상의 전환) : 관심의 부재에서 찾아가는 양궁으로 변화 모색

1990년대 중반까지도 세계 양궁 장비의 시장은 미국이 약 70%, 일본이 약 30%, 이 두 나라가 세계 장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80년대 중반부터 국제 양궁을 주도하고 있었던 한국 양궁이 장비의 문제로 결정적 순간마다 발목을 잡히는 일이 반복, 엄청난 위기에 처함.

10년 후의 한국양궁을 생각하면 미래가 암담함을 느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장비 개발의 필요성을 느낌. 엄청난 견제 속에서도 10년 만에 장비개발에 성공 현재는 국산 양궁장비가 세계 양궁장비 시장에 67%를 장악하는 쾌거를 이뤘다.

“모두가 미쳤다”

“국산은 절대 안된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도 제품 개발에 성공함으로 세계 정상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리더들의 발상의 전환이 만들어낸 쾌거라 말할 수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내고 일부러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적응을 하는 훈련방법을 통하여 극복함으로서 선수들의 자신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지속적인 역량 개발) : 세계 양궁계의 견제와 환경변화

끊임없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보셨듯이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가 심각합니다. 계속하여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역량 개발과 경쟁국가의 훈련 방법등을 연구하고 전력을 분석하여 우리의 전략을 수립,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훈련방법을 개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통찰력과 창의력) : 위기의식과 변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끝난 직후 양궁 지도자들과 상의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경기 방식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수백 가지의 방법 중에 4가지 정도로 압축되었다.
이 4가지의 방법을 집중적으로 대표팀 훈련에 접목하여 대비하던 중
2008올림픽 시작 8개월 전에 세계 양궁연맹에서 경기방식을 발표하였
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측하여 훈련을 해왔던 4가지 방법 중에 한가
지로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발표되었다.
바로 이러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
는 창조력도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주변을 둘러보면 양궁훈련에 관련한 다양한 소
재들이 널려 있다.
그래서 이야기 합니다. “기획과 전략의 원천은 상상력과 창의력” 이
라고 “상상력과 창의력은 곧 생산력이자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 이다.

(글로벌 역량 극대화) : 새로운 패러다임

글로벌 능력의 가장 중요함은 언어라 생각합니다.
요즘 흔히들 얘기합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는 필수다”
한국 양궁에 시급함은 언어에 있다 말할 수 있다.
이 난관을 극복해야만 글로벌 시대에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국제환경에서 비단 양궁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
습니다. 101년 역사의 GM과 159년 역사의 리먼 브러더스의 몰락을 보
면서 엄청난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 즉 희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몫
입니다.

(체계적인 리더 육성) : 리더십

한국 양궁의 성공은 뚜렷한 목표의식과 치밀한 전략 그리고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의 조건

1) 자신과 무한 경쟁을 하라.

- 행동하는 2%가 생각만하는 98%를 지배한다.

2)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라.

- 10년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통해 미래에 철저한 대비를 하라.

3)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라.

- 주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변하라.

4) 성공의 순간 위기를 느껴라.

- 작은 성취를 이루고 긴장의 끈은 놓는 순간 위기는 시작된다.

5) 뜨거운 열정을 가져라.

- “위대한 비전 거대한 꿈” 열정 없이는 이룰 수 없다.